

국내 LCD 출하 5개월만에 반등

2월 출하량 23% 증가 ... 삼성 세계 시장점유율 30% 돌파

국내 LCD 매출 및 출하량이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조사돼 꾀꾀 얼어붙었던 시장이 조금씩 해빙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2월 LCD 패널 출하는 대형이 2945만대로 전월대비 23% 증가해 2008년 9월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전체 LCD 패널 매출도 15% 증가한 32억7000만달러로 5개월 만에 증가했고, 대형 LCD 패널 매출도 14% 증가했다.

디스플레이뱅크도 2월 대형 LCD 패널 출하량이 26.3% 증가한 3010만대로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뱅크 관계자는 “200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하면서 패널과 세트 재고량이 평상시 수준 이하로 낮아졌으며, 크게 하락한 패널 가격 수준에서 세트 제조기업들이 패널 주문량을 다시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등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대형 LCD 패널 매출(8억9300만달러)과 최근 분리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의 중소형 LCD 패널 매출(1억2200만달러)을 합한 삼성의 LCD 매출은 10억1500만달러로 3개월 만에 10억달러를 회복했다.

LCD패널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은 삼성전자(27.3%)와 SMD(3.7%)를 합쳐 31%로 2008년 12월 29.9%, 1월 29.3%에 비해 확대됐다.

LG디스플레이는 1월 25.5%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25.3%로 2위 자리를 굳건히 했다. 이로써 한국기업들의 점유율은 56.3%에 달했다.

반면, 타이완의 AUO(13.3%), CMO(11.3%)는 10% 초반대의 시장 점유율에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19>